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기업활력 제고’ 사례



‘적극행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공직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일!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불편 사항이

신속히 처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3년의 제품 출시 지연, 3일만에 해결하다”



前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휠체어를 개발,
하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3년간 시장 출시 지연



✓ 적극행정

-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타부처 법령 직접 검토
- 관계부처 협의·설득

後

3일만에 관련 인증 취득
▶ 해외 수출계약 700억원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



특허담보대출 은행 확대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다



前

특허(지식재산)담보대출이 있지만
위험부담으로
참여은행 저조



✓ 적극행정

• '회수지원사업' 입안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체무를 못 갚을 경우,
회수전문기구(은행·은행 공동출연)가 특허 매입

• 시중은행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後

특허담보대출 참여은행 확대(2개→7개)

▶ 660여 중소기업에 4,331억원의 자금 공급



특허청 송석민 사무관



“ 발로 뛴 57회의 실무협의,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하다



前

판교테크노밸리의 56개 드론기업은
성남시에서
드론비행 테스트 불가능
(성남시 면적의 82%가
공군 관리구역)



✓ 적극행정

- 공군과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시험비행(56회)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무협의(57회) 주도



後

성남시 내, 드론 시험비행장 3곳 조성
▶ 드론산업 R&D
허브 구축



경기 성남시 김기한 주무관



“ 기업 맞춤지원으로 지자체 최초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다 ”



前

융합제품인 ‘스마트 AED’를 개발했으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만

출시 가능

*스마트 AED : 기존의 자동 심장충격기 + IoT 이식
(남편된 제품) (자체 기술)



✓ 적극행정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
전 과정에 걸쳐 1:1 맞춤형 지원
→ 지자체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로 제품 출시 가능

▶ 국내를 비롯한 동남아(싱가포르,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 진출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제도

경기 안양시 조윤주 주무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더 달라지겠습니다.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국무조정실